

한 국 사 회 학 회 소 식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Newsletter

〈차 례〉

- I. 한국사회학회장 인사말
- II.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장 인사말
- III. 2016년도 임원명단 및 사업계획
- IV. 공지사항
- V. 2016년 지역순회 특별 심포지엄(서울) 성료
- VI. 서울연구원과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체결, 서울의 사회학 단행본 기획
- VII. 출판활동
- VIII. 회원동정
- IX. 언론보도
- X. 행사보고 및 기타공지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발행일 : 2016년 4월 15일

전화 : 02-722-8747

팩스 : 02-722-8746

홈페이지 : <http://www.ksa21.or.kr>

이메일 : ksa8747@hanmail.net

발행인 : 조성남

편집인 : 최슬기

사무국장 : 노을

I . 한국사회학회장 인사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은 우리나라에 처음 사회학과가 설립되어, 한국사회에 사회학의 학문적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지 70년이 되는 해로 명실공히 한국사회학 70년 역사의 문을 여는 해입니다.

우리의 원로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이 차곡차곡 쌓아 오신 한국사회학 70년의 역사 위에, 이제 한국사회학 그 100년을 향해 큰 발을 내딛으면서 한국사회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고, 우리 사회학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역사와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었다지만, 여전히 물질주의의 포로가 되어 “갑질”이 난무하고,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빈부격차의 사슬은 그대로 우리사회를 얽매고 있고, 무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교육격차는 심화되어가고 있는 어두운 모습도 봅니다.

해방 70년이 지나도, 분단은 심화된 채, 마음의 벽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제 성장의 시대는 가고, 저성장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장수가 축복이기 보다는 회색쇼크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도처에서 세대간, 계층간, 이념간 등 다양한 사회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제 우리 한국사회학이 시대를 읽고 사회와 학문을 선도해 가도록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대중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이슈로 대중에게 다가가 있는지, 너무 학문 그 자체를 위한 학문, 혹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육하고 양성하는 학생들과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제대로 적합한 것을 잘 주며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우리 한국 사회학의 현실 적합성, 현장 적합성, 교육대상 적합성 등을 점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학의 현장성과 현실적합성 증대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도 가능할 것이며, 내실화를 기하며, 인접학문과의 연계가 되어야 사회학이 사회과학의 중심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회학 공동체 내의 단단한 결속을 위한 화합과 소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57년에 창립된 우리 학회는 이제 곧 회갑을 맞게 됩니다. 우리 사회학회는 아직도 사회학 1세대 원로선생님들이 생존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여깁니다. 또 70년 역사동안 우리 사회학 DNA를 가진 동문들은 우리 한국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학회가 100년 대계를 꿈꾸는 이 시점, 세대간, 지역간, 분야간의 소통과 조화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가진 자원, 그 문화자본을 귀히 여기고, 한 곳으로 모아, 새 힘으로, 큰 자산으로 어우러져 사회학 DNA를 확산시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회학의 지역 네트워크, 동문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 타학문 분야와의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하여, 우리 <한국사회학 르네상스>를 이루어야, 2030을 향해, 그리고 한국사회학 100년 대계를 꿈꾸며, 사회과학의 중심학문으로서 한국사회학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사회학의 학문으로서의 아름다운 꽃과 결실의 풍요함 속에서 사회적 배려,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실천을 향한 한국사회학의 지평 넓히기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선배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70년 그 역사 위에, 이제 우리는 한국사회학 100년을 향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모두 함께 성원해 주시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동행하며 같이 달리기마가 되어 뛰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8대 한국사회학회 회장 조성남



Ⅱ.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장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장 조주은입니다.

회원님들 모두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연구와 교육에서 많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사회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한국사회학』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발전하여 국내 최고 학술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학술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장(場)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사회학회는 학회지 『한국사회학』을 연 4회, 영문판인 Korean Journal of Sociology (KJS)를 연 2회, 매년 총 6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학회 회원은 누구나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회원으로 가입하면 투고가 가능합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 절차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논문이 출판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한국사회학』과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를 연계하여 『한국사회학』과 학술대회의 질과 양을 함께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2015년 전·후기 사회학대회의 <기획세션>과 연계하여 [한국 사회학사]를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6년부터 전·후기 사회학대회에서 완결된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한국사회학』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완결된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사회학』에 투고하면, 1인의 심사결과는 ‘그대로 게재’로 인정하고 2인의 심사자에게만 심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학』은 논문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와 ‘이메일 투고’를 병행하고 있으며, 점차 온라인 논문 투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하면 논문 접수 및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논문투고는 한국사회학회 홈페이지 첫 화면의 <온라인 논문투고> 배너를 통해

접속하거나 <http://sociology.jams.or.kr>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논문투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이메일로 논문을 접수하오니, kjs.korean@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학』의 영문판 KJS는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가 담당합니다. KJS에 투고하는 논문 역시 ‘온라인 논문 투고(<http://sociology.jams.or.kr>)’와 ‘이메일 투고(kjseditor@gmail.com)’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평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책 3권을 편집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집필 관련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http://sociology.jams.or.kr>) 또는 이미 출판된 학회지의 ‘논문게재 절차 및 원고작성 요강’을 참조해 주십시오. 한국사회학의 지평을 넓혀 줄 회원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학』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훌륭한 연구자들의 논평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요청하면,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학』을 향한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장 조주은

Ⅲ. 2016년도 임원명단 및 사업계획

I 2016년 한국사회학회 임원 명단

1 임원명단

- 회 장 : 조성남 (이화여대)
- 부회장 : 조대엽 (고려대), 장원호 (서울시립대)
- 감 사 : 김경희 (중앙대), 김병조 (국방대)

2 이 사

- 당연직
 - 김무경 (서강대), 강수택 (경상대), 조주현 (계명대)
 - 박명규(차기회장, 서울대), 조주은 (편집위원장, 경북대)
- 선임직 (상임)
 - 총무분과:
 - 최셋별 (이화여대), 김민지 (이화여대), 김은정 (세명대),
 - 윤상우 (동아대), 장진호 (광주과기대),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 연구분과:
 - 이명진 (고려대), 김수한(고려대), 배영 (숭실대),
 - 서우석 (서울시립대), 염유식 (연세대), 장경섭 (서울대)
 - 섭외분과:
 - 황경숙 (성신여대), 김석호 (서울대), 이선미 (서울여대),
 - 이윤석 (서울시립대), 장용석 (연세대), 정철희 (전북대)
 - 국제분과:
 - 이기홍 (한림대), 김두환 (덕성여대), 김창환 (University of Kansas)
 - 신진욱 (중앙대), 예동근 (부경대), 최영진 (경희대)
 - 교육과 진로 위원회:
 - 위원장: 박선웅 (한국교원대)
 - 박정호 (대구대), 신지원 (전남대), 채오병 (국민대)

□ 선임직 (비상임)

- 계봉오 (국민대), 김지영(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김혜순 (계명대), 김혜영 (숙명여대), 박찬웅 (연세대), 설동훈 (전북대), 염미경 (제주대), 염지혜 (중원대), 유승호 (강원대), 윤일성 (부산대), 이종희 (중앙선거방송위), 이혜경 (배재대), 이혜숙 (경상대), 임우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최인이 (충남대), 최정기 (전남대), 황석만 (창원대)

3 <한국사회학>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조주은(경북대)
- 편집부위원장: 김현수(이화여대, KJS담당)
- 편집위원: 김두환(덕성여대), 김백영(광운대), 김수정(동아대), 김수한(고려대), 김영미(연세대), 김창환(University of Kansas), 박경숙(서울대), 신형진(경북대), 이기홍(한림대), 최인이(충남대), 최정기(전남대), 최종렬(계명대), 최 현(제주대), Paul Y. Chang(Harvard University)

- 편집책임: 김한성(한양대, KJS담당)
- 편집간사: 정숙정(경북대), 최경원(이화여대, KJS담당)

Ⅱ 2016년 사업계획

대주제: <한국사회학 70년, 100년을 향하여>

기본 방향과 지향성

- “사회학 르네상스” : 한국사회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위상 재정립
- 시대를 읽고 사회와 학문을 선도해 가는 사회학의 자리매김
- 사회학의 현장성과 현실적합성 증대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
- 학문적 내실화 및 인접학문과의 연계와 소통
- 사회학 공동체의 화합, 조화와 소통 (회원 세대간, 지역간, 분야간)
- 학문후속세대 교육과 양성 (멘토링, 코칭)
- 현장사회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 사회학 네트워크 확장 (동문 찾기, 타학문과의 유대, 글로벌 네트워크)
- 사회학 지평 넓히기: “사회적 배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실천”

1. 학회지 발간

1) 『한국사회학』 발간 : 연4회
편집위원장 : 조주은 (경북대)

2) *Korean Journal of Sociology* 발간 : 연2회
편집위원장 : 김현수(이화여대)

※ 한국사회학회 학술상선정위원회 위원장 : 조대엽(고려대)

2. 정기 학술 대회

1) 전기 사회학대회

- 시기: 2016년 6월 17일(금) ~ 18일(토) 예정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 주제: <한국사회학 70년, 100년을 향하여>
- 사회학 어우름 한마당:
 - 사회학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세대별 학문적 특성을 짚어보고,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사회와 학문을 선도할 새 패러다임 모색
 - 사회학 연계와 네트워크: 동문과 “사회학의 친구들” 함께
 - 대학별, 분과학회별 특성 소개 부스, 포스터 세션
 - 학문후속세대, 대학원생, 학생들을 위한 학술잔치 및 어울림 마당

2) 후기 사회학대회

- 시기: 2016년 12월 16일(금) ~ 17(토) (예정)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 기획세션, 학술 세션, 대학원생 및 학부 세션

3. 특별기획 지역순회 심포지엄

- 주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 전체 4회에 걸친 전국 순회 심포지엄 (부산-광주-대구-서울)
- 연속 순회 심포지엄 기획 취지
 - (1) 우리 시대 현재의 한 당면과제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여는 일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한 모색
 - (2) 국가, 정부, 국회, 정당, 시장,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서의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 재구성
 - (3) 우리사회의 포괄적이고 당면한 과제로서의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국사회학회가 제기함으로써, 사회과학분야 학회들 가운데 한국사회학회의 위상을 제고
 - (4) 전국 순회 심포지엄을 시도함으로써, 학회 역량을 제고하고, 국회,

주요 정당, 광역자치단체,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을 모음으로써 한국 사회학회의 역량 제고

- (5) 민주주의가 삶의 문제 자체라는 점을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해명해냄으로서 사회학의 지평 확장

4. 연구 분과 활동

- 한국사회학 70년, post 광복 70년의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
- 글로벌 환경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전망
- 생애주기와 생활세계의 변화-삶의 질
- 현장성과 현실적합성 반영, 지역사회 연계한 연구
- 학문후속세대, 대학원생, 학생 들을 위한 학술행사, 교육과 진로 멘토링, 코칭, 학문적 글쓰기 (논문, 프로포잘), 연구방법 특강, 워크숍, 세미나 등
- SSK 사업과의 연계/인터넷, SNS와의 연계

5. 섭외 분과 활동

- 지역사회의 이해와 현장사회학- “사회학 1박 2일”
- 사회학 대중과의 소통: 사회학 명강/ 토크 콘서트 (현재 중/고등학교 교사 대상-대상 확대)
-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사회학 캠프 (전기 지속사업)

6. 국제협력

- 국제학술대회
ASEAN 경제사회, 분과학회 혹은 대학별 국제학술행사와의 연계, 세미나, 심포지엄 등
- 동아시아 사회학자와의 교류, 한국사회학대회에 초청 및 중국사회학대회,

일본 사회학대회 참가 등

- 재미 한국사회학자와의 교류(AKSA)- KJS 국제학술지 등재 (SCOPUS, SSCI) 공동노력

7. <위원회> 활동

- 2014년/2015년 <교육과 진로 위원회> 활동과의 연속성유지

- 구체적 사업

(1) 지방 사립대 교수가 바라본 사회학의 위기

지방 사립대의 체감하고 있는 사회학의 위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방 소재 7~8개 사립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인터뷰)를 1) 지방 사립대 사회학과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존의 사회학 위기 담론의 문제점 2) 개별 사회학과가 처한 학문적 위기의 구체적 사례 3)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학과 차원의 방안과 그 적용(혹은 실패)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

(2)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내용체계 분석

사회과 교육의 기본 목표인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진로 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심화 과목으로서 『사회·문화』는 고등학생에게 사회학에 대한 학문적 흥미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에 매우 중요한 길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로 사범대의 교과교육학자에 의해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10명의 사회학자를 선정, 현행 『사회·문화』 교과서의 내용체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하여 『사회·문화』가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회학의 학습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수정·보안 사항을 제시하여 향후 『사회·문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지침을 제공

- “사회학 100년을 향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8. 학회 조직 및 재정, 운영체계의 정비

- 1) 2015년 활동과의 연계성과 연속성 유지
- 2)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회원들의 회비납부, 기부금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 3)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및 정보 제공, 의사소통, 논문 투고 활성화:
- 4) 지방대와 서울 소재 대학 간 네트워크 형성
- 5) 뉴스레터 발간 계속
- 6) 기타

기타

- 1) 한국사회학회 총서 출판 관련 사업
- 2) 전국고등학생 사회학 논문대회 (2015년-제 4회) 지속성 및 대학원생 논문대회로의 확대 등에 대한 논의

IV. 공지사항

I 2016년 회비 납부 안내

○매년 4월은 “회비 납부의 달”○

매년 4월은 “회비 납부의 달”입니다. 그 동안 회비를 납부하고자 하셨더라도 바쁘신 일로 기회를 놓치신 회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께서는 학회지가 발송되지 않고 있사오니 2016년도 회비를 납부하신 후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다시 학회지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학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서의 발표자격은 회비 납부 여부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사회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정년퇴임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명예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학회의 모든 활동과 회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학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2016년도에 정년퇴임을 하신 교수님들 중 학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사오니 퇴임사실을 학회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학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주셔서 학회의 발전에 도움 주시고 후배 연구자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 안내

- 정회원 : 6만원(전임) / 4만원(비전임, 박사과정 대학원생)
/ 평생회비 100만원
- 준회원 : 2만원(석사과정 대학원생 포함)
- 명예회원 : 회비 면제(정년퇴임교수, 개정 이전 회칙에서 원로회원에 해당하는 회원 포함)
- 단체회원 : 10만원(각 대학 사회학과, 타 학과, 타 학회, 각 학술단체 등)
- 기관회원 : 50만원(도서관, 법인, 각종 기관)

◆ 회비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142-163640-01-10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회비 입금 시 입금자명을 회원님의 성함으로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학회 운영위원회

II

2016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공고

2016. 6. 17 [금] ~ 6. 18 [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학회는 오는 6월 17~18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융합의 시대, 사회학의 위상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2016년 전기사회학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회는 사회학대회를 사회학 공동체의 지성의 향연이자 따뜻하고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융합 학문’과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회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사회학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한국사회학회는 사회학대회의 참여와 학술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사회학』 편집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뛰어난 연구 성과들이 『한국사회학』에 출간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본 학회는 학문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횡적·종적 연계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하고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향후 상세한 안내문과 초청장을 전송해 드리기에 앞서 논문발표 신청과 관련 사항을 공지합니다. 전체 일정은 발표주제가 접수된 후 총괄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오니, 발표 희망 연구자들께서는 아래 명기된 주제별 세션 조직 책임자분들께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별 세션 조직 책임자분들께서는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발표 희망시간, 발표 보조물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학회 연구분과(ksameeting2016@gmail.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규모가 크다보니 희망발표일이 모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을 주제별 세션 조직 책임자분들은 발표 신청자분들께 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세션으로 외부 연구용역 과제 발표회나 BK, SSK, HK, 개인 자유발표 등의 발표회 등과 관련해서 별도의 세션을 구성하실 수 있으니 특별세션 조직 책임자에게 연락주시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 전기사회학대회>를 준비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이번 대회 논문발표자는 2016년도 사회학회 회비를 완납하는 것으로 한다.
회비납부 계좌: 우리은행 142-163640-01-10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2. 발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어도 발표요약문은 필히 제출해야 한다.
 - 1) 홈페이지 업로드용(PDF파일 제작): 『한국사회학』 기고 요령에 따른 A4 10-15매 내외의 분량
 - 2) 대회자료집 수록용: 발표요약문 A4 2매 이내 분량 엄수
3. 발표 신청 마감: 5월 13일(금) / 원고 제출 마감: 5월 27일(금) (세션 조직 담당자에게 제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2016년 전기사회학대회가 멋진 지적향연의 장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국사회학회장 조성남 올림

2016년 전기사회학대회 개요 및 주제별 세션 조직 책임자 목록

<프로그램 개요>

6월 17일 (금)	
09:30 ~ 10:00	등록
10:00 ~ 12:00	일반 세션 / 대학원 세션
12:00 ~ 13:30	점심 식사
13:30 ~ 15:30	일반 세션
15:30~16:00	휴식
16:00 ~ 18:00	사회학 어울림 한마당
18:00 ~ 19:30	만찬
6월 18일 (토)	
09:30 ~ 12:00	일반 세션/ 대학원 세션
12:00 ~ 13:00	오찬
13:00 ~ 15:30	전체회의

<일정 및 장소, 준비사항>

- 일정: 6월 17일(금), 18일(토)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 발표 신청 마감: 5월 13일(금)
- 원고 제출 마감(요약문, 논문원문 모두 해당): 5월 27일(금)
- 원고 제출 양식과 분량
 - 1) 홈페이지 업로드용(PDF파일 제작) : 『한국사회학 기고 요령에 따른 A4 10-15매 내외의 분량
 - 2) 대회자료집 수록용: 발표요약문 A4 2매 이내 분량

<주제별 세션 조직 책임자>

아래 분과 및 주제별로 구분하고, 발표 신청은 각 주제별 세션 조직책임자에게 한다.

I 분과(일반 세션)

이론	김봉석(성균관대)	livemodern@skku.edu
문화	이희정(이화여대)	socio.h.lee@gmail.com
사회사	강진연(연세대)	jinyeon@gmail.com
종교	전명수(고려대)	54mschun@hanmail.net
동양사회/ 동양사상	정승안(동명대학교)	sovong@nate.com

II 분과(일반 세션)

경제/조직	김수한(고려대)	kimsoohan9@korea.ac.kr
도시/지역	임동균(서울시립대)	dkim@uos.ac.kr
범죄/일탈	김상원(동의대)	sangkim@deu.ac.kr
정보/과학	유은혜(숭실대)	eyoo@ssu.ac.kr
복지/평등	이미화(고려대)	mihwalee@korea.ac.kr

III 분과(일반 세션)

젠더/가족	배은경(서울대)	sereneb@snu.ac.kr
다문화/소수자	신지원(전남대)	juliashin@jnu.ac.kr
농촌	김홍주(원광대)	kanddol@wku.ac.kr
인구/노인	황명진(고려대)	mojohwang@korea.ac.kr
사회심리학	김상학(한양대)	sanghag@hanyang.ac.kr

IV 분과(일반 세션)

정치/민주화	전승봉(서강대)	sjeon1230@gmail.com
산업/노동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mjnpark@kli.re.kr
계급/계층	김영미(연세대)	youngmikim@yonsei.ac.kr
환경	김도균(충남대 시민사회연구소)	k642645@hanmail.net
국제정치사회	김태균(서울대)	oxonian07@snu.ac.kr
글로벌리제이션 /인권	이정은(성공회대)	lljee@naver.com
한독사회학회	이철(동양대)	cleee@dyu.ac.kr

V 대학원생 및 특별 세션

대학원생 세션	김석호(서울대)	seokhokim@snu.ac.kr
특별세션(BK, SSK 등)	윤상우(동아대)	sangwoo@dau.ac.kr

* 상기 세션 이외의 기타 주제의 논문이나 별도의 세션 구성에 대해서는 전기사회학대회 조직을 맡은 연구이사 이명진(고려대, leemj@korea.ac.kr) 교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한국사회학회의 전기학술대회에서 완결된 논문의 형태로 발표한 경우,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사회학』에 투고하면 1인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그대로 게재'로 인정하고 2인의 심사자에게만 심사를 의뢰하고, 사회학대회의 기획세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연구분과 및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한국사회학』의 기획논문으로 게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국사회학회 2016년 전기사회학대회 준비위원회

V. 2016년 지역순회 특별 심포지엄-서울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성료

I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기획취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1960년 4월의 민주주의가 군부에 유린된 후 1987년 6월의 민주주의가 피어나기까지 긴 독재의 시간이 있었다. 4월의 민주주의는 비록 짧았지만 첫 번째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고, 6월의 민주주의는 오랜 군부독재를 마감하고 두 번째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로부터 약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1987년 6월의 민주주의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기도 했지만 이제 시민의 삶과 분리된 국가주의와 이념정치, 지역주의정치로 남았다. 다른 한편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 시장질서로 재편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낡은 껍질로 남은 87년의 ‘정치’와 해체되고 균열된 97년의 ‘사회’가 뒤틀려 결합된 기형의 질서를 드러내고 있다. 87년의 민주주의가 진화를 멈춘 채 정치가 길을 찾지 못하는 동안 시민의 삶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불안한 사회, 희망 없는 시대의 현실 속에 양극화와 불평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우리는 해체되고 분열된 사회, 정글과 같은 경쟁이 만연한 피로사회의 고단한 삶 속에서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 오래 민주주의의 문제를 잊고 있다. 견디기 힘든 시민의 삶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틀로 바뀔 수 있다. 87년의 민주주의가 진화를 멈춘 이래 이제 세 번째 민주주의의 시대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세 번째 민주주의의 시대는 우리 삶의 새로운 방식과 결합된 근본적 민주주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시민의 삶이 배제된 민주주의를 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의 시대’, ‘다른 민주주의의 시대’를 여는 토론장에 모여야 한다.

한국사회학회는 세 번째 민주주의의 시대를 위한 사회과학분야의 공론을 모으고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한 지역순회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고자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 나아가 세 번째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가급적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술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3월 서울, 5월 광주, 7월 대구, 11월 부산에서 마무리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서울 심포지움은 사회변동과 정치질서변동의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된다.

서울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1.사회 · 정치 변동과 민주주의

2016
한국사회학회
지역순회
특별 심포지엄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서울 심포지엄

KOREA
DEMOCRACY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I. 사회 ·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초청의
말씀**

우리 민주주의가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1960년 4월의 민주주의가 비록 짧았지만 첫 번째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고, 1987년 6월의 민주주의가 오랜 군부독재를 마감하고 두 번째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87년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실질적 삶과 분리된 체 대의 정치의 장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사회, 희망 없는 시대의 현실 속에 양극화와 불평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힘겹고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오래 민주주의의 문제를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87년의 민주주의가 진화를 멈춘 이래 이제 세 번째 민주주의 시대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사회학회는 세 번째 민주주의의 시대를 위한 사회과학분야의 공론장을 열고자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5회에 걸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 나아가 세 번째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합니다. 3월 서울, 5월 광주, 7월 대구, 9월 대전, 11월 부산에서 마무리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서울 심포지엄은 사회변동과 정치 질서변동의 맥락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과제를 모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에 부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15일

한국사회학회장 조 성 남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이 진 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I. 사회·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일시 2016년 3월 31일(목요일)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주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경향신문, 서울연구원

개회식 1:00 - 1:30

사회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개회사 조성남 (한국사회학회 회장)
환영사 이진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축사 강원택 (한국정치학회 회장)
축사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기조강연 1:30 - 2:00

균형과 평등을 향하는 서울
 : 협치와 혁신이 만드는 도시 민주주의
강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1부 사회변동과 민주주의 2:10 - 4:00

사회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한국사회 불평등과 민주주의
발표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토론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공공성 프레임의 변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발표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토론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21세기 정보사회변동과 정치변동
발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토론 이항우 (충북대 사회학과)

휴식 4:00 - 4:10

제2부 정치제도 변화와 민주주의 4:10 - 6:00

사회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한국 정당정치와 권력구조의 개혁과제
발표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토론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한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헌법민주주의의 현실
발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SSK "사회진보와 공화적 공존" 사업단)
토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발표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학과, SSK "사회진보와 공화적 공존" 사업단)
토론 정철희 (전북대 사회학과)

III

서울 심포지엄 성료보고

한국사회학회는 2016년 3월 31일에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 사회·정치 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한국연구재단, 경향신문, 서울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2016년도 한국사회학회 특별위원회가 기획한 「지역순회 특별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준비위원장 조대엽 한국사회학회 부회장)의 첫 번째 순서로 개최한 서울 대회였다.

지역순회 심포지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의하는

지역순회 심포지엄을 서울(3월), 광주(6월), 대구(7월), 대전(9월), 부산(11월)에서 개최하여, 각 지역에서 국회, 정당, 광역자치단체,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을 모아내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그 첫 번째 행사인 서울 대회에서는 한국 사회와 정치 변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혁신방향에 관해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 다양한 학제 영역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균형과 평등을 향하는 서울: 협치와 혁신이 만드는 도시민주주의”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경쟁과 소통이라는 서울시정의 원칙, 공개·공유·숙의·참여라는 도시민주주의2.0의 이념, 그리고 제도정치를 넘어 경제와 사회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확대를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을 연 중앙대 신광영 교수는 “한국사회 불평등과 민주주의” 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한국의 낮은 투표율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이 깊으며, 고용불안정과 소득격차 등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저소득층과 노동계급의 투표율이 낮아져서 불평등 구조를 정치적으로 의제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됨을 강조했다. 신광영 교수의 발표는 여러 언론보도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어 고려대 조대엽 교수는 “공공성 프레임의 변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경쟁과 효율이 지배하는 97년 이후의 한국사회에서는 이제 국가주의 프레임, 체계정치 패러다임을 넘어서 생활공공성과 생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21세기 정보사회변동과 정치변동”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트위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정치적 이슈의 확산과 여론의 변화, 또 정치가 그로부터 영향 받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학자들 뿐 아니라 정치학, 법학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두 번째 세션은 정당정치와 헌법에 관한 발표들로 구성됐다. 한림대 최태욱 교수는 “한국 정당정치와 권력구조의 개혁과제” 라는 발표에서 민의를 정당정치 영역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한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헌법민주주의의 현실” 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민주공화국, 민주복지국가,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헌법적 정체성을 뚜렷이 담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지 않는 한국 정치와 사회 현실을 변혁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순서였던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시민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좋은 시민’ 을 통해 정치 양극화와 사회 분열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제도 정치 참여와 그 외부에서의 사회참여, 그리고 사회통합적인 가치지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역순회 심포지엄 서울 대회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시사저널, 그 밖의 여러 지역신문에서 보도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광주, 대구, 부산 대회도 학계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진욱, 중앙대학교, 한국사회학회 국제이사)

Ⅵ. 서울연구원과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의 사회학 단행본 기획

한국사회학회(회장 조성남)와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은 지난 2월 4일(목) 서울연구원 원장실에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사회학회와 서울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의 사회 변화와 공간 변화에 대한 공동 연구를 활성화 해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공동 연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서울의 사회학(가칭)’ 단행본을 기획하여 출간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서울의 사회학’ 출간 프로젝트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 서울연구원으로부터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되며, 서울시립대학교 서우석 교수, 서울연구원 변미리 미래연구센터장이 연구 책임을 맡았다. ‘서울의 사회학’에서는 서울의 사회 변화와 공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다루어질 전망이다.

6월에 열리는 전기사회학대회에서는 ‘서울의 사회학’과 관련된 두 개의 특별세션을 열어 집필진의 연구 계획과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VII. 출판활동

<한국사회학> 2016년 제50집 1호 발간

<한국사회학> 2016년 제50집 1호에는 연구논문 8편이 실렸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논문>

- 사회집단과 정치권력: 변화하는 선거연합과 투표기제, 대통령선거(1992-2012) 분석 / 성경룡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가족유형에 따른 일탈행위의 차이 분석 / 김현식
- 미국의 농민시장과 공동체지원농업: 배태성의 관점에서 본 특징과 활성화 방안 탐색 / 김원동
-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연결망, 계층화, 협업: 조선고등법원 민사 상고 사건 판결록(1910-23)분석을 중심으로 / 박천웅
- 감정노동 담론의 경합과 공존: 의미연결망을 통한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우, 김왕배
- ‘이윤의 지대되기’와 정동 엔클로저: 구글과 페이스북의 독점 지대 수취 경제 / 이항우
-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 빈곤율 변화에 미친 영향 / 박경숙, 김미선
- 행복에 대한 소득의 상대적 효과: 위계선형모형의 수준간 상호작용항을 사용한 분석 / 류지아

VIII. 회원동정

부고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김병조 교수 부친상 : 2015년 12월 13일 별세
- 최신타 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제 23,24대 한국사회학회 회장 역임) : 2016년 1월 28일 별세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진승권 교수 모친상 : 2016년 2월 15일 별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 장미혜 박사 시부상 : 2016년 2월 15일 별세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한준 교수 장인상 : 2016년 3월 6일 별세

신입회원 (성명 가나다 순)

- 권오정 - 한양대학교 SSK 다문화 사업단 전임연구원
- 김태근 -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후 연구원
- 박으뜸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 신재휴 -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학과
- 조성덕 - 건국대학교 영화·애니메이션학과
- 주혜정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박사 수료)
- 황은정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박사 수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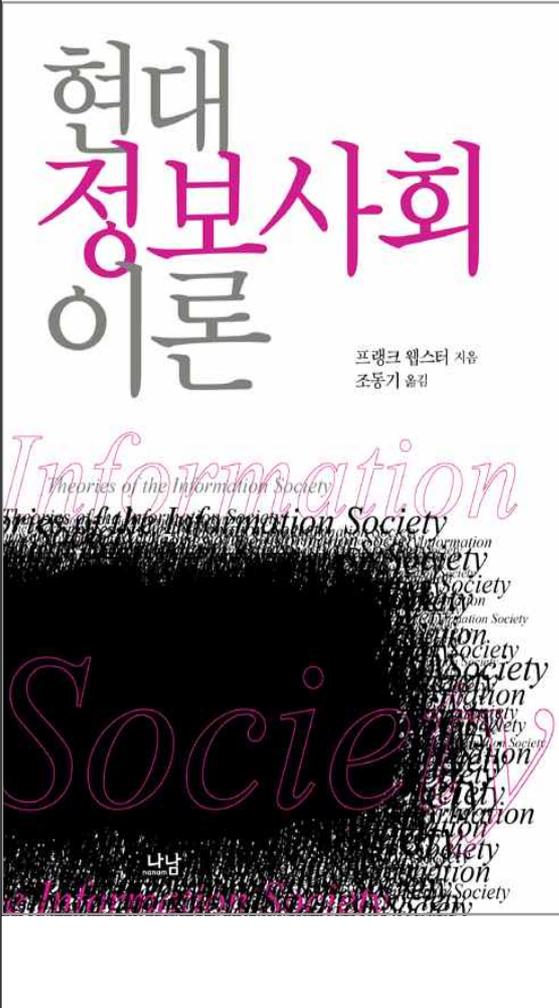
○ 전태국 (강원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제 49대 한국사회학회 회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사회과학대학 Sigrid Rossteutscher 학장의 초청을 받아 2016년 4월부터 한 학기동안(4월-9월)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한다. 강의제목은 “Dynamics of Social Change in Korea” 이다.

전태국 교수는 2013년 2월에 정년퇴임 후 동년 4월부터 한 학기 동안 동 대학에서 강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강의제목은 “Confucianism and Korea’s success” 이었으며, 사회학과와 정치학과, 국제갈등연구과정의 대학원생 20명 가량이 수강하였다.

전태국 교수는 독일 권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재단 (FAZIT-Stiftung)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있으며, 1984년에 동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동 대학의 객원교수(Gastprofessor)를 수차례 역임한 바 있다.

○ Frank Webster/조동기(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옮김.<현대정보사회이론>(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4th Edition, 2014), 나남, 2016년 3월 20일

	목차
	<p>제1장 서론</p> <p>제2장 '정보사회'의 정의</p> <p>제3장 정보의 질</p> <p>제4장 탈산업사회 - 다니엘 벨을 중심으로</p> <p>제5장 조절학과</p> <p>제6장 네트워크 사회 - 마누엘 카스텔을 중심으로</p> <p>제7장 이동성</p> <p>제8장 정보와 시장체계 - 허버트 설러를 중심으로</p> <p>제9장 정보와 민주주의 I - 하버마스, 공공영역, 공적 서비스 제도</p> <p>제10장 정보와 민주주의 II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신하이에크주의자를 중심으로</p> <p>제11장 정보, 성찰성, 감시 - 앤서니 기든스를 중심으로</p> <p>제12장 정보와 탈근대성</p> <p>제13장 '정보사회'를 넘어서</p>

저자는 '정보사회'의 의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간을 견지하면서 정보적 발전을 바라보는 주요 현대사회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이번 제4판의 핵심 주제는 민주주의, 정보 그리고 신기술 간의 관계이다. 저자는 '아랍의 봄', 최악의 세계 금융위기,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의 급성장 등 최근의 사회, 기술적 변화들을 검토한 후,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주요 이론가들의 작업을 재평가한다. 이 책은 사회학, 정치학, 지리학, 언론학, 정보공학, 문화연구, 컴퓨터, 문헌정보학 등과 관련된 학제간 저작으로서, 현대사회의 기술적 및 사회적 변동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라 할 수 있다.

- 임현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문기(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
윤상우(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지음

《글로벌 패러독스: 아시아의 도전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년 2월 25일

 <p>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출서 기초연구시리즈 4</p> <p>아시아의 도전과 과제</p> <p>글로벌 패러독스</p> <p>임현진 · 서문기 · 윤상우 지음</p> <p>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p>	<p style="text-align: center;"><목 차></p> <p>제1부 발전이란 무엇인가? 제1장 서론: 세계화의 논리와 발전의 성찰 제2장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제3장 신제도주의와 조절이론 제4장 세계체제론과 세계사회론</p> <p>제2부 발전의 정치경제: 세계화의 구조와 역학 제5장 현대자본주의 위기와 재구조화 제6장 세계화 시대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제7장 세계화와 반세계화</p> <p>제3부 아시아 자본주의 가능성과 한계 제8장 자본주의 다양성과 동북아 공동체 제9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만 발전국가 제10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발전의 함수관계 제11장 결론: 한국의 현재적 좌표와 과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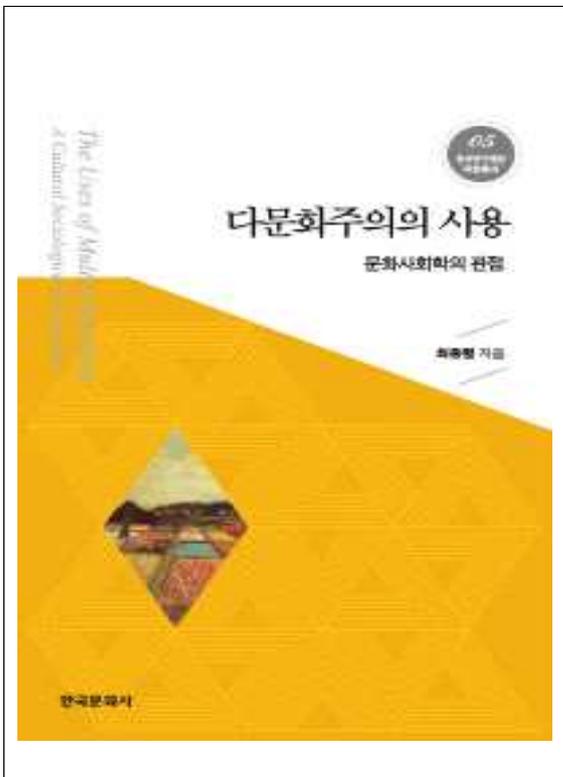
지난 세기 서구 세계는 세계화 과정을 통해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 그림을 따라가기 위해 혼란됐지만, 오늘날 여러 국가가 발전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존 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상황이다. 변화의 중요성은 신(新)자유주의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의 딜레마와 이를 풀기 위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국가 간 비교분석 전략을 바탕으로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은

독자적인 완결성을 지니면서도 전체적인 틀과 그에 상응하는 논리와 체계를 갖도록 발전의 이론과 경험의 적실성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제1부에서는 세계화의 진행과정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발견적(heuristic) 범주로서 세계화의 논리와 발전의 의미를 탐구한다. 제2부에서는 세계화의 구조와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신자유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과 민주화 과정의 '빛과 그림자'를 경험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이에 따라 세계화와 사회발전의 불평등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한다. 제3부에서는 세계화 과정에 따른 발전의 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구촌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간주되는 글로벌 발전의 전망과 함께 한국의 역할과 과제를 다룬다.

○ 최종렬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지음

《다문화주의의 사용: 문화사회학의 관점》, 한국문화사, 2016년 3월 25일

	<p style="text-align: center;"><목 차></p> <p>여는글 한국사회의 문화풍경</p> <p>제1장 문화사회학으로 본 다문화주의</p> <p>제2장 서구 다문화주의 정책과 담론</p> <p>제3장 정의: 이데올로기 차원의 다문화주의</p> <p>제4장 자아실현: 전통 차원의 다문화주의</p> <p>제5장 공적 프라이버시: 상식 차원의 다문화주의</p> <p>제6장 한국의 다문화주의</p> <p>닫는글 민주주의와 사회적 공연</p>
--	--

1. 문화화용론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에 접근

이 책은 다문화주의를 문화화용론의 관점에서 다룬다. 문화화용론은 행위자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지적으로 분류하고, 도덕적으로 가치 평가하며, 정서적으로 느끼기 위해 그에게 공적으로 가용한 문화구조를 활용하여 말과 행위를 구성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구조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징체계라는 점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인간의 행위는 타자를 전제하고 있으며, 타자와의 상

호작용은 반드시 공적으로 가용한 상징체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문제적 상황을 정의하는 것도, 그에 대한 문제 해결도 모두 공적 상징체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2. 다문화주의를 국민국가를 넘어 선한 삶을 안내하는 공적 상징체계로 제시

이 책은 다문화주의를 이주의 지구화를 통해 한국사회에 발생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의 한 종류로 보며 다문화주의를 국민국가를 넘어 더 나은 삶으로 행위자를 안내하는 공적 상징체계로 제시한다. 행위자가 다문화주의를 사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세계를 경험하고 표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핵심은 이들과 함께 어떻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3. 문화의 사용 방식과 세팅을 결합하여 독특한 다문화주의 연구 분석틀 구성

이 책은 다문화주의를 사용하는 방식을 상식, 전통, 이데올로기로 분석적으로 나눈다. 또한 행위자들이 다문화주의를 사용하는 세팅을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시민 영역', '친밀성 영역', '공공 영역'으로 분석적으로 나눈다. 이 둘을 결합하여 독특한 연구 분석틀을 구성한다.

4. 민주주의를 사회적 공연의 관점에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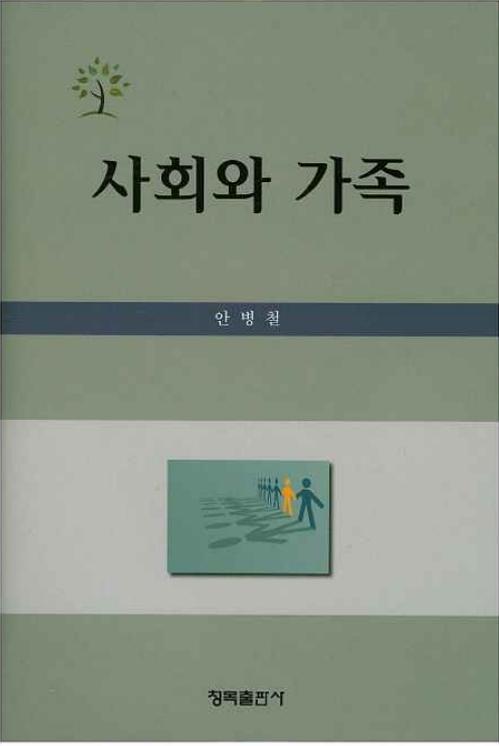
이 책은 다문화주의를 민주주의가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 보다 일반화된 타자로 확장 적용되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담론적 실천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사회적 공연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집합표상의 체계인데, 유구한 역사를 두고 전해져 내려오는 배경 표상과 이로부터 화용론적 목적으로 창출한 대본으로 구성된다. 행위자가 공적 상징체계를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체화한 대본의 타당성을 다른 행위자에게 입증하는 것이다.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 행위자가 평등과 성취라는 공적 상징체계를 통해 구성한 대본을 실행할 때 다른 행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시민 영역과 친밀성 영역에서 행위자가 탁월성과 사랑이라는 공적 상징체계를 통해 구성한 대본을 실행할 때 관객의 판단 기준은 자아실현이다. 공공 영역에서 행위자가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는 공적 상징체계를 통해 구성한 대본을 실행할 때 관객은 공적 프라이버시라는 타당성 기준을 통해 바라본다.

○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 지음
 《무크 10대 이슈》,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년 4월 1일

	<목 차>
<p>무크는 개방과 공유라는 인터넷의 기본 철학과 대학 교육이 결합해 만들어낸 새로운 교육 실험이다. 특히 교육 소외층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학습 시대를 맞아 날로 커지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준다는 점이 무크의 성공 요인이다. 성과가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여러 대학이 무크 참여를 모색하거나 독자적인 무크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 한국형 무크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뜨거운 쟁과 냉철한 분석은 아직 국내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무크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안내서다.</p> <p style="text-align: right;"><small>커뮤니케이션이론총서</small></p> <h2 style="text-align: center;">무크 10대 이슈</h2> <p style="text-align: center;"><small>민 경 배</small></p>  <p style="text-align: right;"><small>커뮤니케이션북스</small></p>	<p>01 무크의 혁신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가</p> <p>02 무크의 효과성: 교육 효과가 높은가</p> <p>03 무크의 경제성: 저비용으로 가능한가</p> <p>04 무크의 민주성: 교육 민주화에 기여하는가</p> <p>05 무크의 실용성: 직업 수요에 부응하는가</p> <p>06 무크의 파괴성: 대학 교육을 위협하는가</p> <p>07 무크의 확장성: 제도화될 수 있는가</p> <p>08 무크의 다양성: 어떻게 분화하고 있는가</p> <p>09 무크의 지속성: 수익 모델은 무엇인가</p> <p>10 무크의 한계성: 해결 과제는 무엇인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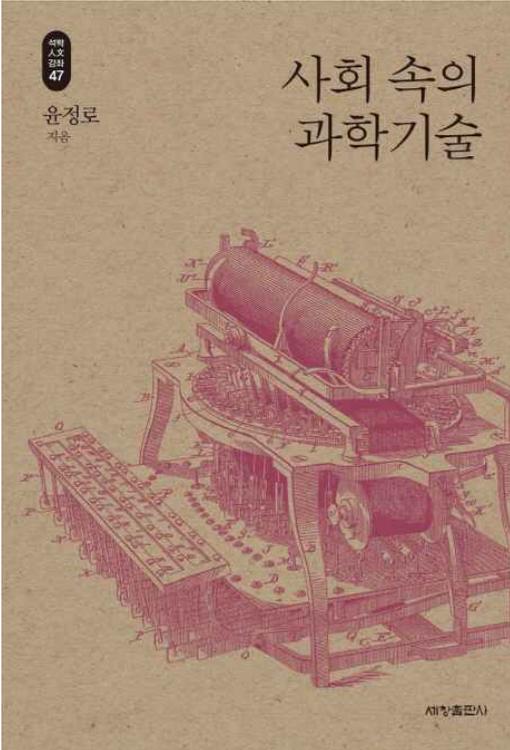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는 개방과 공유라는 인터넷의 기본 철학과 대학 교육이 결합해 만들어낸 새로운 교육 실험이다. 특히 교육 소외층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학습 시대를 맞아 날로 커지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준다는 점이 무크의 성공 요인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무크의 교육적 성과가 알려지면서 한국에도 무크 열풍이 불고 있다. 여러 대학이 무크 참여를 모색하거나 독자적인 무크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 한국형 무크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성과의 이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무크를 둘러싼 서구 학계에서의 뜨거운 쟁과 냉철한 분석은 아직 국내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무크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무크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안내서다.

○ 안병철(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지음
 《사회와 가족》, 청목출판사, 2015년 11월 25일

	<p style="text-align: center;"><목 차></p> <p>제1부 경제위기와 가족 제1장 경제적 고통과 가족 제2장 경제적 고통과 가족갈등</p> <p>제2부 기업·법과 가족 제3장 가족친화제도: 등장 배경과 현황 제4장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비판·대응</p> <p>제3부 성역할과 가족 제5장 한국사회의 성역할 변화: 현황과 대응 제6장 남성의 가족 역할 변화 요인</p> <p>제4부 교육과 가족 제7장 조기유학의 현황과 자세 제8장 부권회복과 가정교육</p>
--	---

이 책은 사회와 가족을 다룬 이론서이다. 사회와 가족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윤정로(KAIST(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지음
 《사회 속의 과학기술》, 세창출판사, 2016년 3월 25

	<p style="text-align: center;"><목 차></p> <p>제1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1장 과학은 어떻게 제도화되는가? 2장 과학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장 기술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을까?</p> <p>제2부 과학기술과 여성, 젠더 4장 여성이 본 과학기술, 어떻게 다른가? 5장 과학기술, 여성에게 좁은 문인가? 6장 과학기술, 여성의 삶을 바꾸는가?</p> <p>제3부 현대 과학기술의 명암 7장 과학기술과 위험,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8장 질주하는 과학기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9장 과학기술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려면?</p>
--	--

이 책은 필자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제5기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에서 ‘사회 속의 과학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총 4회에 걸쳐 강연한 내용을, 과학기술사회학 전반에 대한 소개를 염두에 두고 확대·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과학기술 지식과 제도의 형성 및 작동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 과학기술학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따라, 과학기술사회학의 이론과 관련 현상의 분석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여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여성 필자로서 여성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탐색한 작업에 비중을 두었다. 과학기술 분야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고 아직도 여성과는 거리감이 큰 영역이라는 통념에 대해, 서구의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관점과 이론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여성과 젠더 요인에 초점을 두어 한국 과학기술의 발자취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현대 과학기술의 잠재적 위험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무엇일

가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필자는 과학기술사회학 이론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여 꼼꼼하면서도 딱딱하지 않게 서술함으로써 과학기술사회학의 이론을 공부하려는 입문자 및 전공자들에게 유용하고, 특히 페미니스트 과학기술사회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섭렵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

IX. 언론보도

I

‘한국사회와 에너지 미래를 묻다’ 심포지엄 개최

뉴스시스 외 3건

공익감시언론 뉴스시스
NEWSIS

인쇄하기 | 닫기

서울대, '한국사회와 에너지 미래를 묻다' 심포지엄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6-09-09 14:28:57]

[서울=뉴스시스] 황보현 기자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사회학회는 4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섭적 접근을 통해 '한국사회의 에너지 미래'를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인문학, 환경학, 도시공학, 정책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폭넓은 대화와 토론에 나선다.

미태수 인제대 석좌교수(인간환경미래연구원장)를 좌장으로 ▲인문학과 실용주의 관점에서 본 에너지의 미래(조재원·울산과학기술원 도시공학부 교수)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합의의 중요성(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미래 산업과 에너지 수요의 변화, 이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김희집·에너지산업협의회 공동위원장) ▲에너지 미래 구상과 원자력 딜레마의 해결방안(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서울대는 "이번 심포지엄이 에너지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hbh@newsis.com

▲자료 : 뉴스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3_0013934144&cID=10201&pID=10200)

2016 지역순회 특별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개최

경향신문 외 15건

70경향신문

흙수저·금수저...“불평등 심화는 민주주의 기능도 약화시킨다”

심진웅 기자 sim@kyunghyang.com

입력 : 2016.04.03 20:58:36 | 수정 : 2016.04.03 21:06:36

·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경제적으로 소외된 유권자

선거 불참으로 불만 표시
과잉대표 계급과 배제 계급
격차 더 커져 '대의제 왜곡'

권역별 비례대표제 무시한
새누리 선택, 부끄러울 정도
정치의 책임성 강화 시급

‘흙수저와 ‘금수저’ 그리고 ‘헬조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낡은 신조어들이다. 사회적 불만과 분노의 기운이 감지된다.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런 불만과 분노가 투표로 이어질 테지만, 현실은 다르다.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는 말은 공허하게 여겨지고, 행동보다 불신과 냉소가 앞선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불평등 심화가 민주주의 정치체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한국사회학회 지역순회 특별 심포지엄’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불평등 심화는 시민들 사이 신뢰와 공감의 기반을 허물고,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32058365&code=960100)

X. 행사보고 및 기타공지

학술행사 보고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의 새로운 모색>

- 주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삼성의료원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일시: 2016.2.15.(월)오후2:00~6:0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 수련홀

<담배소송의 과학적, 법률적 근거> 동계심포지엄

- 주최: 대한예방의학회
- 일시: 2016.2.17.(수)오후1:30~5:30
- 장소: 서울의대 국제관 원광홀 B101호

<동아시아 친밀성의 전환> 국제학술대회

- 주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 플러스 사업팀, 중앙사회학연구소, 홋카이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일시: 2016.2.19.(금)~20.(토)
- 장소: 중앙대학교 아트센터(301관) 703호

<학문 수용 과정으로서의 번역: 서구의 번역사회학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콜로키움

- 주최: 문화사회학회
- 일시: 2016.2.26.(금)오후6:00
- 장소: 서강대 정하상관 215호

<한국사회와 에너지 미래를 묻다> 심포지엄

- 주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사회학회
- 일시: 2016.3.4.(금)오후3:00~6:0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10호 영원홀

<현대 독일 비판이론: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해외저명학자 초청강연

- 주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PLUS 사업팀, 중앙사회학연구소
- 일시: 2016.3.14.(월)오후3:00~5:00
- 장소: 303동(법학관) 801호

<파슨스 초기 사회학이론에서의 ‘사회’ 개념> 콜로키움

- 주최: 문화사회학회
- 일시: 2016.3.25.(금)오후6:00
- 장소: 서강대 정하상관 215호

<Scie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 주최: 경희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 일시: 2016.3.25.(금) 오전10:00~오후5:20(conference)
3.26.(토) 오전10:00~오후12:00(round table)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 401호/정경대학 211호

한반도미래연구원 개원 학술세미나

- 주최: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일시: 2016.3.30.(수)오후2:00~5:40
- 장소: 국민대학교 본부관 1층 학술회의장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사업의 의미와 과제> 학술대회

- 주최: 한국보건사회학회
- 일시: 2016.4.8.(금)
- 장소: 서울 선릉역 대치빌딩

<누구를 쉐트리피케이션의 저항주체로 호명할 것인가?-한국의 상가세입자 운동을 통한 주체 형성의 고찰> 질적연구 콜로키움

- 주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 일시: 2016.4.13.(수)오후5:00~7:00
-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관 N402호

학술행사 안내

<글로벌 문화와 지역발전> 2016년 전기 지역사회학대회

- 주최: 한국지역사회학회
- 일시: 2016.5.21.(토)~22.(일)
- 장소: 경상대학교 통영 캠퍼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 발표 신청 마감: 2016.4.20.(수)
- 논문 원고 마감: 2016.5.15.(일)

<극지(極地)에 선 세대들> 봄학술대회

- 주최: 한국문화사회학회
- 일시: 2016.5.28.(토)
-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유엔 SDGs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실천적 과제>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 주최: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 일시: 2016.6.17.(금)오후2:00
- 장소: 전북대학교

<Different Forms of Inequality in Korea and Beyond> 한국불평등연구회 심포지엄

- 주최: 한국불평등연구회
- 일시: 2016.6.30.(목)~7.2.(토)
- 장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이만섭홀

제38회 IATUR 국제학술대회

- 주최: 통계청, 한국시간학회
- 일시: 2016.7.20.(수)~22.(금)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학술지 원고모집 안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저널 논문 및 서평을 모집 안내

- 접수마감일: 1호(2016.4.15), 2호(2016.10.15)
- <http://peaceinstitute.hanyang.ac.kr> 참고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원고 모집 안내

- 접수마감일: 2016.4.30.(수)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krss.or.kr)를 참고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원고 모집 안내

- 접수마감일: 2016.4.22.(금)
- 추가 문의는 편집위원회(societyandtheory@naver.com)로 문의

◆뉴스레터 공지 이용 안내◆

(사)한국사회학회 뉴스레터는 매 1월, 4월, 7월, 10월의 15일자로 발행하며 원고 마감일은 전월 말일까지입니다.

뉴스레터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활동(저서출간, 보직, 안식년, 출장 등)과 변동사항(주소, 전화번호, 직위 등)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학과 활동 등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사)한국사회학회 사무실(Tel: 02-722-8747, Fax: 02-722-8746, E-mail: ksa8747@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